

인도는 2017년 1,000개의 신생 스타트업이 만들어져 스타트업 수가 총 5,500개 사에 이르렀다. 지난 10 년간 ‘유니콘’ 기업은 10개사나 탄생했다. 인도 정부는 2016년에 ‘스타트업 인도’를 내걸어 에코 시스템의 강화를 목표로 한다

B2B계 스타트업 비율 상승

왕성한 기업가 정신, 유연한 발상력, IT 인재의 풍부함은 인도의 대명사이며, 스타트업은 인도에서 태어나도록 생겨난 기업 형태라고 해도 좋다. 인도는 많은 사회 과제도 안고 있어 이를 비즈니스 기회로 하는 스타트업도 적지 않게 존재한다.

일본무역진흥회가 2018년 2월에 발표한 ‘2017년도 일본발 지적재산활용 사업화 지원사업 에코시스템 조사-인도편’에 따르면, 인도 스타트업 수는 2017년 기준 5,500개 사에 이른다. 2017년에만 1,000개사의 스타트업이 새롭게 신설되었지만 그와 동시에 기존 기업의 도태도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다. 2020년에는 인도 전역에서 스타트업 기업 수가 1만 개사에 달할 것이라는 예측도 있다. 인도의 스타트업 입지로는 대도시가 중심이며, ‘인도의 실리콘밸리’로 불리는 인도 남부 벵갈루루를 중심으로 북부 델리 근교, 서부 뭄바이 등으로 전체의 약 80%를 차지한다.

스타트업의 사업 영역에 대해 업계 관계자는 전자상거래(EC) 등 B2C계 기업이 60%로 업계의 대다수라고 전하면서 다만 최근 기업용 서비스, 건강기술, 핀테크 등 B2B계 비율이 분명히 상승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스타트업 투자액은 2017년 기준 34억 달러에 이르며 투자자의 절반은 외국인 투자자다. 스타트업을 측면에서 지원하는 인큐베이터와 액셀러레이터 수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2017년에는 전년 대비 약 4% 증가한 190개소에 달했다.

‘1인 스타트업 허브’가 떠오르고 있어

인도 정부도 스타트업 지원을 가속화하고 있다. 모디 총리는 2016년, 인도를 ‘세계 이노베이션 허브’로 발전시키는 것을 목표로 ‘스타트업 인도’ 정책을 도입했는데, 복잡한 절차의 간소화, 자금 지원과 인센티브 제공, 산학 협력과 인큐베이션 제공 등 3개 틀 아래 현지 스타트업을 지원하기 위한 19가지 구체적인 액션 플랜이 실행되고 있다. 또한 2017년도 중앙정부의 예산안에서도 스타트업 기업에 대한 우대 조치가 포함되었다. 2016년 4월 1일부터 2019년 3월 31일 사이 설립된 매출액 2억 5,000만 루피 이하의 고도의 기술을 가진 스타트업은 설립 후 7년간 중 언제든 연속 3년 동안 법인세 납세의무가 면제된다.

최근 10년 새 10개 유니콘 탄생

인도의 스타트업 기업 중, 시장의 평가 금액이 10억 달러가 넘는 비상장 유니콘 기업이 최근 10년 사이 10개나 탄생했다. 대표적인 기업이 바로 페이티엠(Paytm)이다. 이 회사는 2009년 창업한 이래 1만 명 이상의 직원을 보유한 인도 최대의 전자 결제 회사로 성장했다. 결제 서비스는 잡화점이나 야채가게 등 영세 소매점을 포함해 800만 개 상점에서 이용할 수 있다. 2016년 말의 고액권 무효화에 따른 현금 부족도 전자 결제를 빠르게 확산시켰다. 동사는 2015년 중국 알리바바 그룹으로부터 6억 달러의 투자를 받았으며, 2017년에는 일본의 소프트뱅크로부터 14억 달러의 막대한 투자를 받고 있다.

한편 인도의 스타트업 업계의 과제로 ‘이그지트(Exit)의 어려움’이 꼽힌다. 인도에도 신흥기업을 위한 주식 시장이 존재하지만 아직까지 미성숙한 단계이며 신규 주식공개(IPO)가 쉽지 않은 것이 원인의 하나로 꼽힌다. 업계 관계자는 인도 시장은 거대하고 다양하고 이익을 내는 데 예상보다 시간이 걸릴 수 있다는 것이 업계를 떠나는 것을 어렵게 하는 하나의 요인이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세계의 스타트업, 에코시스템을 조사한 연구에 따르면, 스타트업의 실적이나 자금 조달의 용이성, 인재의 질, 이그지트의 용이성 등 여러 평가 기준에 입각한 랭킹에서 벵갈루루는 20위를 차지했다. 그러나 스타트업 선진 도시인 미국의 실리콘 밸리(1위), 영국 런던(3위), 중국 베이징(4위) 등에는 아직 못 미친다. 인도에서 속속 탄생하는 스타트업을 속도감 있게 성공으로 이끌어 세계로 뻗어나가기 위해서는 인도의 스타트업 업계 전체의 새로운 퀄리티 향상이 필수적이다.

자료정리: EMERiCs, 자료감수: 권기철 부산외국어대학교 교수

※ 출처

JETRO, 스타트업 1만 시대를 눈 앞에 둔 인도의 지금 2018.9.14.

<https://www.jetro.go.jp/biz/areareports/2018/d00f1f71ae9de706.html>